

두꺼운 선수층·강자 즐비...조연에서 주연으로

세종팀 28명 단일팀 전국 최다 규모
범충청권은 100여명 선수층 두꺼워
황인혁·전영규·양승원 등 강자 많아
충남·북 협공 승리 늘어...결속력 국
지역 최고팀 찬스...강력한 리더 필요



광명스피드 벨로드롬 트랙을 질주하는 경륜 선수들. 그동안 수도권이나 영호남의 기세에 밀려 보조적인 킴메이커 역할에 머물던 충청권이 최근 두터운 선수층을 바탕으로 레이스마다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 경륜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륜 충청권의 최근 행보가 예상밖이다. 최근 레이스에서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매 경주 팬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충청권은 최다승을 기록한 레전드 홍석한(그랑프리 2회 우승)이 전성기를 누릴 때도 주목을 받지 못한 지역이다. 위로는 수도권, 아래로는 영호남에 밀려 독자적인 세력을 펼치지 못하고, 주요 대회에서 한쪽에 힘을 보태는 킴메이커 역할에 머물렀다. 그런데 이렇게 레이스의 조연에 머물던 충청권이 요즘 달라졌다.

●자력 승부형 강자 즐비

우선 선수층이 두텁다. 충청권의 핵심인 세종팀이 28명. 단일팀 규모로는 전국 최다이다. 라이벌 김포(24명), 동서울(18명) 그리고 최근 뜨거운 수성(17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트랙과 도로에서 합동훈련을 같이하는 범충청권을 보면 규모가 더 커진다. 대전과 미원이 각각 15명이고 여기에 유성(8명) 학하(6명) 도안(7명) 대전·충남·충북 개인훈련자(18명)까지 합치면 무려 100여명에 달한다.

단순히 수만 많은 게 아니다. 지역대장 황인혁을 중심으로 충북 에이스 전영규, 라이징 스타로 각광받는 양승원·김

관희, 26기 최대어 김영수·방극산을 비롯해 김환운, 임지형, 정태양, 김범수, 조주현, 황준하, 이성용, 최종근, 박성현, 김현경, 김범중 등 강자들이 즐비하다. 우수, 특선의 중상위권 선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들 대부분이 상황에 따라 선행, 뒷하기 등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자력 승부형이다. 여기에 장보규, 홍석한, 박종현 같은 고참부터 새 대부한 25, 26기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아무리 우수한 자원이 풍부해도 결속력이 없으면 결과를 내기 힘들다. 하지만 충청권 선수들은 유성벨로드롬 그리고 도로 훈련에서 지속적으로 충남, 충북 선수들이 어울려 합동훈련을 하며 호

흡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경주중 이들이 협공을 통해 올린 승리가 타 지역에 비해 최근 많다. 그 범위도 특선부터 우수, 선발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46회 일요일 창원 선발전 결승에선 충북의 이록희와 이찬우, 부산 우승급 결승에선 세종팀 김민배와 방극산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명 일요 우승급 결승에서도 세종팀 삼인방 박준성, 김명섭, 김영수가 1, 2, 3위를 휩쓸었다.

●'지역 최강 노릴만하다'

전문가들은 충청권이 지역 최고의 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대규모 군단을 이끌 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

은다. 전통적으로 충청권의 간판스타나 리더급 선수들은 무리수를 피하고 라이벌 또는 특정지역과 맞서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로 팀의 전력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역할이 절실하다.

예상지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충청권은 지금 경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상에 자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비록 경륜 1인자는 임채빈이 주목을 받지만, 지역 최강은 충청권이 판세를 뒤집기에 충분하다. 이는 팬들의 관심을 유발시켜 또 하나의 흥행요소로 자리매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경정 '16기 신인왕전' 스타트

오늘 43회차 13경주 12명이 레이스 펼쳐
신인왕전은 41회차까지 6명 선발해 진행

경정 '16기 신인왕전'이 43회차인 24일 수요일 13경주에 열린다. 현재 16기는 총 12명으로 김보경, 김현주, 나종호, 박민성, 손유정, 염윤정, 오상현, 이수빈, 임지훈, 전동욱, 최인원, 홍진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프로 경정선수가 되기 위한 전문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했다. 2020년 신인레이스를 통해 미사리 경쟁장에 데뷔했다.

이번 '신인왕전'은 선수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특별한 경주다. 데뷔 후 출전기회는 딱 한번 뿐이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경정 선수 생활 내내 '신인왕전 우승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신인왕전'은 41회차까지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6명을 선발해 진행한다. 우승상은 500만원이다. 현재 나종호, 전동욱, 김보경, 홍진수, 이수빈, 염윤정 등이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 중에서도 당회차 모터 배경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가장 성적이 좋은 나종호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다.

임병준 폐쇄성 예상분석 전문가는 "동기생들 간의 경쟁이 큰 상금과 첫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특별한 경주인만큼 기량의 200% 이상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스나 모터를 분석하는데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상 후보를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체육진흥공단-인터넷진흥원 도박 근절 업무협약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불법 경륜경정·스포츠토도 관련 도박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양측은 2021년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문자 중 도박관련 스팸이 194만 건(43%)으로 가장 많은 것에 주목하고 국민들을 불법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레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불법 사이버 도박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약이 사회적 문제인 불법 도박 시장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액으로 즐기는 'Speed-On 전용경주' 도입

26일 오전 광명 1경주부터 스타트
청소년 차단...1경주당 5만원 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사업 건전화화를 위해 온라인에서만 경주권을 구매할 수 있는 'Speed-On 전용경주'를 시행한다. Speed-On 전용경주는 26일 오전 11시

40분 광명 1경주를 시작으로 매 경주일(금·토·일) 첫 경주에 진행된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6일부터 경주 수도 기존 13경주에서 15경주(지방 6경주, 광명 9경주)로 확대한다. 경주별 운영 장소는 1경주 광명, 2~7경주 지방, 그리고 8~15경주까지는 다시 광명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첫 경주시간도 기존 낮 12시 50분에서 오전 11시 40분으로 1시간 이상 당긴

다. 단, 고객의 영업장 입장은 종전처럼 오전 10시 30분이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이번 Speed-On 전용경주 도입을 통해 사업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월부터 도입한 온라인 경주권 발매 '스피드온'은 구매단가가 1경주 당 5만원(오프라인은 1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인 소유(실명제)의 스마트폰(1대)으로만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또한 과몰입 보호를 위해 회원가입 시 '건전구매지킴이' 기능 등을 통한 규제 장치와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온라인 경주권 고객은 오프라인에 비해 소액으로 경주를 즐기는 성향이 뚜렷하다. 총 발매건수 중 1만원 이하 고객의 비율이 90%에 가깝고, 건당 평균 구매금액도 6000~7000원 수준이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온라인 발매가 사업의 건전화화를 위한 노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WITH코로나 #대한민국 숙박대전 어디로 가시렵니까?

장경리.한국

선재도.한국

실리포.한국

보고
Bogo

먹고
Meoggo

놀고
Norgo

자고
Jago

사고 치러
4Go

영흥도 선재도 가즈아!!!

#배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섬
#내 차 타고 떠나는 섬
#수도권 1시간 거리, 선재도와 영흥도
#전국 유일 소사나무군락지, 실리포

#수도권 최장길이 짙라인, 2022
#해변가 전선 지중매설, 영흥도
#모세의 기적, 목섬
#CNN 선정 국내 1위, 목섬

#인스타 핫플 가득한 곳
#치유의 섬, 선재도. 쉽표 하나
#칩섬, 측도, 소우도, 만두부리섬,
#갯벌체험 전국, 선재도와 영흥도

#인천상륙작전 전초기지/X-ray작전
#도심근교/해안데크/둘레길/어촌풍경
#일출/낙조장관, 출사지추천
#드라마, 예능, 영화 촬영지

#놀이동산, 낚시공원
#바람개비, 제트보트
#강동열차, 바이킹
#도자기체험, 에너지체험